

폭염·가뭄·고수온 비상…농·수협, 현장 지원 총력

축산·과수농가 긴급 점검…살수·영양제·양수기 확대
서남해 연안 어가 피해 대응 강화…보험금 신속 지급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고수온이 이어지면서 농축산물과 양식수산물 피해가 확산되자 농협과 수협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긴급 지원에 나섰다.

농협은 이달 말까지 '축산경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폭염 취약 농가를 상시 점검하고 피해 발생 시 즉각 지원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안병우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지난 4일 전남 보성의 축산농가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농협은 전국 540개 공동방제단 차량을 활용해 축사 살수 서비스를 매일 실시하고, 고온 스트레스 저감제와 비타민제, 생균제, 미네랄 블록 등을 지원해 가축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협시료는 축사 살수 서비스와 특별 영양사료를 공급하고, 농협목우촌도 비타민제와 아미노산제를 지원하는 등 축산농가의 가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예방에도 나섰다. 김주양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지난 5일 경남 김해와 진주의 단감·배 재배농가를 방문해 강한 햇빛으로 과실이 손상되는 일소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예방약제 지원과 양수기·펌프 긴급 공급, 영양제에 극북키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날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는 경남

김해·밀양·창원 지역 농가와 저수지를 찾아 농업용수 공급 상황과 가뭄 피해를 점검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농협은 전국 5927곳의 농축협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벼쿨러 32만 개와 부채 100만개, 양파즙 100만개, 폭염 안전수칙 리플렛 20만부를 지원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과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협도 고수온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의 넉지 양식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제주를 비롯한 서·남해 연안에는 수온이 28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어지면서 고수온 경보가 발령됐다. 전남 기준 양식보험에 접수된 고수온 피해 신고는 전국 69건, 피해 규모는 1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 23건, 경남 14건, 전남 13건, 충청 10건, 경북 9건이다.

수협은 전국 9개 지역본부로 중심으로 양식보험 가입 어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농협전남본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강화하고, 수중드론 등 스마트 장비를 활용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또 양식보험 손해사정 인력을 피해 현장에 긴급 투입해 사고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보험금도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협은 지난달 말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 1단계' 발령과 함께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복구·금융·유통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양식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영 재기를 지원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농협전남본부, 해남 가뭄 피해 현장점검

농작물 생육상태 확인·현장 중심 지원방안 논의

농협전남본부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활동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광일 본부장은 해남군 화산면 일대 가뭄피해 농경지와 저수지를 찾아 농업용수 공급 상황과 지역특산물인 고구마 등의 생육상태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살펴보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한편 관내 농축협과 함께 폭염 및 가뭄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이광일 본부장은 "폭염과 가뭄 장기화로 농업인의 걱정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

인 만큼 유관기관 및 관내 농축협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농업인의 생명과 농작물을 보호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대응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농협은 지난 7월부터 500여개 사업장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며 벼쿨러, 부채, 양파즙, 생수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제, 영양제, 양수기, 펌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주신보, 전통시장에 폭염 극복 생수 나눔

양동시장·말바우시장 각각 100만원 상당 지원

광주신보보증재단은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취약계층 이용객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양동시장과 말바우시장에 생수를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생수 지원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고령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의 열질한 예방과 무더위 극복을 위해 마련

됐다.

이번 활동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재단은 지난달 양동시장에 이어 최근 말바우시장에 각각 100만원 상당의 생수를 전달했다.

재단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수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와 함께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힘을 보탰다.

염규승 이사장은 "이번 생수 지원이 취약계층과 무더위 속에서 생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및 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광주신보보증재단은 여름철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취약계층 이용객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양동시장과 말바우시장에 생수를 지원했다.

SW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운영

전남정보문화진흥원, 은·오프 교육…15명 배출

(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소프트웨어(SW) 미래채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2026년 전남 소프트웨어(SW) 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지역 우수 인력을 발굴·양성해 AI·SW 교육 분야의 전문 강사 인력을 확보하고, 정보교육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역 내 경력보유 여성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생을 모집해 전문 역량 강화와 취·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에도 의미를 뒀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된 교육생 15명은 지난 6월 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두 달간 총 164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실시간 온라인 교육 80시간과 SW미래채움 전남센터에서 진행된 오프라인 교육 84시간을 통해 AI·SW 교육 전문가로 성

장하기 위한 역량을 쌓았다.

교육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AI·SW 교육 기초 이론과 교수학습 사례를 비롯해 피지컬 컴퓨팅,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분야를 다뤘으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교육생들은 수료 이후 취·창업 성공 여부에 따라 별도의 위촉 절차를 거쳐 SW미래채움 전문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위촉강사는 지역 내 특수학교와 작은학교, 아동센터 등 SW교육 수요처에 파견돼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AI·SW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